

최태원 회장, SK 지분 대량매각

SK, 자금유동성 확보 위해 ... 매각이유 확실치 않아 궁금증 증폭

SK 최태원 회장이 개인지분 104만787주(2.22%) 가운데 1만주를 뺀 103만787주(2.19%)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매각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최태원 회장은 개인지분 매각을 통해 800억-9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.

SK그룹은 관계자는 “최태원 회장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SK의 개인지분을 판 것”이라며 “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권에는 영향이 없다”고 말했다.

SK의 지분구조는 SK C&C가 31.82%(1494만4432주)로 최대주주이고, 이어 SK가 자체적으로 자사주 13.81%를 보유하고 있다.

이밖에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씨가 0.03%(1만5911주), 최신원 SKC 회장이 0.01%(6510주), 박영호 SK 사장,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등 특수 관계인들이 절반에 가까운 47.92%를 보유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 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2/24>